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에 대한 중학생의 요구도 및 관련변수¹⁾*

황 현 정* · 이 연 숙**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An Analysis of Pro-Environmental Consumer Educational Needs in the Middle School.

Hwang, Hyun-Jung* · Lee, Yon-Su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environmental consumer educational needs in the middle school.

The data for the analysis are collected by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for 426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ul are analyze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One-way ANOVA.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major findings. : 1) The need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e pro-environmental consumer education are high. The content showing the highest educational need is "The purchasing behavior of pro-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2) The sex of students, the experiences of taking 'Environment class', and types of housing ar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environmental consumer education need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주제어(Key Words) :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교육 요구도, 환경친화적 소비자가치교육, 환경친화적 소비자시민교육, 환경친화적 소비자자원관리교육.

1) 교신저자 : 황현정(H9224@hitel.net)

* 본연구는 석사학위논문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요구도와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중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현대 산업사회가 추구해온 발전에 대한 가치관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급속한 발전을 이뤄냈으나, 동시에 심각한 문제도 파생시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문제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민현선, 1998)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개발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김수남, 1993)

그런데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나, 국가 정책의 전환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환경문제는 자원의 사용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실천이 밀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소비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환경친화적 소비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환경친화적 소비는 첫째, 소비생활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인지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둘째,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기업과 환경파괴자를 감시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백병성, 1997).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소비태도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이미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는 표면적인 확대일 뿐, 교육내용은 이론적으로 치우쳐있고, 지나친 반복·중복으로 인해(김영옥, 1999) 환경문제를 일상적인 현상으로 만들어놓음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도록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문영훈, 2000).

따라서 환경교육의 확대에 걸맞는 체계화와 내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환경교육과 소비자교육을 개별적인 영역으로 다루고 있고, 환경친화적 소비에 관한 연구인 경우에도 주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

향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고 관련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중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내용영역에 대한 요구도 및 필요도,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내용 영역에 대한 요구도 및 필요도,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는 관련 변수에 따라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고찰

1.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1) 환경문제와 소비의 관계

환경오염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 또는 소비 후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소비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은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일부 행정관료나 전문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도 소비자문제의 한 영역이므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백병성, 1997).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소비의 관점에서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정립된 개념인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줄여서 쓰는 용어로서, 그 의미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갈 수 있는 성장을 뜻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의 개발행위는 환경용량 또는 지구의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저야 한다는 한계성을 포함하며, 자원의 배분의 경우에는 현세대간은 물론 미래세대와도 공평하여야 한다는 필요의 개념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라는 개념도 결국은 지속가능 개발이 지향하는 한계성과 필요의 개념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소비는 ‘미래세대의 요구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소비’로 이해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소비자교육은 개인이 소비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이기춘,1988).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능력은 자신의 가치체계를 인식하고 발전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며, 사회에서 소비자시민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비자 지식, 소비자 태도, 소비자 기능의 총체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생태적 상황을 고려하고 소비자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소비자교육에서 당연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평생교육이며 실천교육인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을 통해, 이 시대의 근본적인 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예방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백병성,1997).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 왔다.

차정은(2000)은 청소년의 환경친화적 소비 의식과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좀더 실용적이며 실생활과 연관성 있고,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영훈(2000)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생활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민현선(1998)은 환경친화적 소비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 측면의 해결을 위한 교육방안과 상황제약적 측면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3) 학교 환경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학교급별로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은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7개 과목에서 환경 교육내용이 분산 수록되어 있으며, 학교 재량시간(3~6학년에서 각 학년별 연간 34시간)을 이용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중등의 경우에는 제5차 교육과정까지 초등과 마찬가지로 여러 과목에 분산 수록되어 실시되어 오다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교에 각각 ‘환경’, ‘환경과학’이 독립과목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환경교과가 교과 편제상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선택률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환경교육의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체험중심의 현장학습, 조사, 토론 학습 등이 중요하나 현재의 교과서 체계나 학교의 교육환경은 강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선정,2000).

환경교육의 현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희균(2001)은 교과학습을 통한 환경교육이나 교실 내 활동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교육 효과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보전교육은 교과시간, 특별활동시간, 학교 행사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폭넓게 실시하여 습관화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생활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상대(1998)는 환경보전과 개선에 대한 인식도, 의식, 가치관, 이해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에 관심도와 참여도, 실천도가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교육보다는 TV, 신문, 잡지등 대중매체의 영향이 컸으며, 학교교육에서는 대체로 교과교육보다는 실천적 접근을 하는 환경보전 특별활동의 영향이 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학교의 환경교육은 표면적으로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학교급간 또는 교과간에 연계성이 부족하여 내용이 산만하고, 지식위주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천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용을 통합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2. 교육에 대한 요구도

1) 교육요구도의 개념 및 의의

요구는 현상(What is)과 이상(What should be)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gap)또는 조건(conditions)

을 말하며, 이것을 파악해내는 것이 요구도 분석이다 (Bolye, 1982; 이연숙, 1998 재인용). 교육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교육요구도이며, 현재의 학습과 배움에 관한 능력수준이나 상태와 개인 및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학습에 관한 능력수준 및 상태 사이의 관념적, 실제적 간격과 차이를 뜻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바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의 성취에 관계되는 자신의 현재 능력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면, 자신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보다 강한 학습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연숙, 1998).

이러한 교육요구도의 적용은 학습자가 요구하는 항목을 그대로 나열하는데서 그치지 보다, 학습 프로그램 구성시 사회적 요구에 의한 필요과제까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권정원, 1996).

2) 교육요구도 분석 유형

교육요구도 분석은 선요구도 분석(Pre-needs assessment), 인지요구도 분석(perceived needs assessment), 분석적 요구도 분석(in-depth analytical needs assessment), 복합 요구도 분석(compound needs assessment)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Altschuld, 1982). 선요구도 분석은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고, 인지요구도 분석은 현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일반적으로 그 차이점의 크기에 따라 요구도에 대한 순위를 정한다. 분석적 요구도 분석은 인지요구도 분석과 비슷하지만 주로 현장에서 얻은 자료(harder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복합 요구도 분석은 두 개 이상의 요구도 분석을 함께 사용하며, 형식적인 평가와 순위를 매기는 것을 포함한다(채정현, 1996).

특히 인지요구도 분석은 현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요구도 측정이 비교적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교육적인 요구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이러한 인지요구도 분석 유형 중 Lave와 Root의 모형(1978)과 Borich의 모형(1980)을 수정하여 적용한 채정현(1996)의 방식을 들 수 있다. Lave와 Root의 모형은 현상태와 바람직한 상태를 결정하는데 적절하고, Borich의 모형은 조사연구를 통해 알아낸 현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사이의 차이를 그 크기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데 편리하다.

3)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요구도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은 학교 소비자교육의 일부, 혹은 환경교육의 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교육과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의 요구도를 연구한 김영애(1992)는 특히 가계재정, 구매법과 자원의 관리 및 보존, 그리고 자원의 활용, 환경문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법과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의 요구도가 높다고 하였다.

김동연(1998)은 고등학교 소비자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요구도 조사에서, 앞으로 강화시켜야 할 영역으로 교사들은 환경, 소비에 대한 가치관, 소비자 보호라고 응답하였으므로 이러한 영역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에 대한 인지요구도를 분석한 장안나(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필요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환경보호영역, 소비에 대한 가치관, 합리적인 구매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보호영역, 소비에 대한 가치관, 소비 경제환경의 이해, 금전관리교육의 순으로 현재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요구도는 소비자시민성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환경보호는 4위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도가 높지만, 현재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그런데 소비와 관련된 환경교육내용에서 처분행동(재활용)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교과에서 반복되어 다루어지고 있을 뿐, 구매행동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하여 영역간에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 문영훈(2000)의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안나(2000)의 연구에서는 환경보호영역의 소항목으로 구매행동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보호영역이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가 높은 점수를 얻어 결과적으로 요구도가 낮아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어머니와 교사의 요구도를 분석한 염수경(1997)의 연구에서, 어머

니와 교사의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요구도는 자연환경, 대기오염, 자원절약, 쓰레기 공해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요구도는 대기오염, 자원절약, 환경정화, 환경의 질 향상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대회(1997)는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행동의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환경재난 및 파괴에 대한 홍보, 자연체험의 기회, 환경보전적 활동(자원절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교 소비자교육의 요구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환경문제를 소비자교육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부분 환경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환경의 개념영역보다는 환경문제 영역과 환경보호 영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지역내의 지역적 차이, 성별의 차이, 학교 설립형태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골고루 선정하였고, 최종 12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2002년 7월 11일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용어를 구

체화하고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가정과교육 전공 교수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본조사를 위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02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총 470부의 질문지를 우편으로 배부하여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설명한 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452부를 회수하였으나(회수율 96%), 이중에 내용기재가 부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426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필요도, 현재 다루고 있는 정보 및 관련 변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총 4개 영역,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영역은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에 대한 필요도에 관한 것으로 13문항, 두번째 영역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자교육에 대한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에 대한 것으로 12문항이다. 이 두 영역은 이득연과 송승연(1993), 문영훈(2000)이 제시한 내용을 준거로 하여 구성한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내용영역(환경친화적 가치교육, 환경친화적 소비자시민교육, 환경친화적 소비자자원관리교육)에 대해 필요도,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를 각각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점 Likert 척도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점, 3점, 2점, 1점을 주었다. 필요도와 현재 다루고 있는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종류	구분	N	%
학교위치	강북지역	217	50.9
	강남지역	209	49.1
성 별	여자	236	55.4
	남자	190	44.6
주택형태	단독주택	82	19.2
	연립(빌라)주택	129	30.3
	아파트	199	46.7
	상가주택	16	3.8
환경과목 이수여부	환경과목 이수함	86	20.2
	환경과목 이수안함	340	79.8

정도에 대한 질문의 주관적인 측면으로 인해, 응답이 '보통'으로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두가지에 대한 응답은 현상태(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와 바람직한 상태(필요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육요구도를 산출하는데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세번째 영역은 중학생이 생각하는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으로 8문항이 포함되었고, 마지막은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3문항이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내용에 대한 중학생의 필요도와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 요구도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N),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요구도와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Scheffé 사후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요구도 분석방법은 인지 요구도 분석유형으로 이는 교육내용 대한 "현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육요구도"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현상태"란 진술된 교육내용이 현재 교육과정에서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수준으로 본연구에서는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바람직한 상태"는 응답자가 진술된 내용을 어느정도 필요(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교육 내용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대수준을 말한다. 본연구에서는 '필요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인지 요구도 분석을 위해 Lave와 Root의 모형(1978)과 Borich의 모형(1980)을 수정하여 적용한 채정현(1996) 방식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한 필요도와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각 응답자들이 표시한 필요도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의 점수를 뺀 차이점수를 계산한다.

② 이 차이점수에 각 문항의 필요도 평균을 곱하여 요구도를 산출한다.

③ 산출된 요구도에 근거하여 각 내용영역의 순위를 정한다.

모든 자료의 처리는 SPSS for Windows(10.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도의 일반적인 경향

〈표 2〉는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3개 대영역(환경친화적 소비자 가치교육, 환경친화적 소비자 시민교육, 환경친화적 소비자 자원관리교육)하에 5개의 소영역(소비윤리영역, 소비자 환경문제 영역, 소비자 환경권 및 환경책임 영역, 환경친화적인 소비자구매 행위 영역,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사용 및 처분행위영역)의 내용 항목에 대한 중학생의 필요도,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 요구도의 수준을 보여준다.

인지요구도 분석유형에서「요구도」는 필요도와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와의 차이 점수이므로, 요구도가 높은 내용영역은 교육내용으로 많이 다루어져야한다고 중학생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한 필요도의 일반적인 경향

중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에 대한 필요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표 2), 전체 평균값은 4점 척도 중 3.2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의 필요도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사용 및 처분행위」영역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 환경권 및 환경책임」(3.31점), 「소비윤리」(3.30점), 「소비자 환경문제」(3.25점),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구매행위」(3.23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의 점수가 3.38점에서 3.23점으로 보통 이상의 높은 필요도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큰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소비생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사용 및 처분행위」의 영역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학생들은 기존의 환경교육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내용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 중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경향

지금까지 학습한 교과목(가정, 도덕, 과학, 사회, 환경 등)에서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이 다루어

지고 있는 정도를 중학생에게 질문한 결과(표 2), 전체 평균값이 4점 척도 중 2.58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의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는 필요도와 마찬가지로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사용 및 처분행위」영역이 2.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윤리」(2.64점), 「소비자환경문제」(2.53점), 「소비자 환경권 및 환경책임」(2.48점),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구매행위」(2.3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각 교과목의 환경교육 내용 중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구매행위」영역이 가장 적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비자는 사용이나 처분영역보다는 구매영역에서 환경을 덜 고려한다는 박운아, 이기춘(1995)의 연구결과를 볼 때, 「환경친화적 소비자 구매행위」영역은 교육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적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3)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의 일반적인 경향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한 중학생 요구도의 일반적 경향(표 2)을 보면,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구매행위」영역이 2.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 환경권 및 환경책임」(2.72점), 「소비자 환경문제」(2.32점), 「소비윤리」(2.18점),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사용 및 처분행위」(1.48점)의 순으로 나타나, 앞에 제시된 필요도나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의 순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인지요구도는 필요도와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의 차이 점수이므로, 필요도가 높은 문항이라도 현재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면 그만큼 요구도가 낮게 나타나며, 반대로 현재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으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다. 필요도와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에서 1위를 차지한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사용 및 처분행위」영역이 요구도는 낮아져서 5위인 반면, 필요도와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에서 5위를 차지한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구매행위」영역은 요구도가 높아져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구도를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인 소비자교육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환경친화적인 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한 필요도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내용		필요도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영역 순위	전체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영역 순위	전체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영역 순위	전체 순위
환경친화적 소비자가치 교육	1.바람직한 소비	3.40	0.58	1	2	2.75	0.71	1	3	2.20	2.78	1	8
	2.청소년의 소비문화	3.20	0.60	2	6	2.53	0.79	2	7	2.15	2.96	2	9
	소비윤리 영역 소개	3.30	0.60	--	3	2.64	0.76	--	2	2.18	2.92	--	4
환경친화적 소비자시민 교육	3.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3.18	0.67	2	8	2.47	0.75	2	8	2.25	2.97	2	7
	4.국내외 환경오염의 실태	3.31	0.74	1	4	2.59	0.82	1	4	2.40	3.51	1	6
	소비자 환경문제 영역 소개	3.25	0.71	--	4	2.53	0.78		3	2.32	3.25		3
	5.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3.47	0.67	1	1	2.58	0.83	1	5	3.10	3.48	1	1
	6.환경분쟁과 해결방법	3.36	0.67	2	3	2.54	0.83	2	6	2.75	3.30	3	4
	7.생활속의 환경오염	3.20	0.64	3	6	2.58	0.83	1	5	2.00	3.23	4	10
8.환경을 감시하는 소비자의 역할	3.19	1.58	4	7	2.23	0.76	3	11	3.05	5.51	2	2	
	소비자 환경권 및 환경책임 영역 소개	3.31	0.98	--	2	2.48	0.83	--	4	2.72	4.01	--	2
환경친화적 소비자자원 관리교육	9.환경친화적 구매의사결정과정	3.19	0.67	2	7	2.42	0.79	1	9	2.46	3.14	2	5
	10.환경상품	3.26	0.70	1	5	2.34	0.76	2	10	3.00	3.15	1	3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구매행위 영역 소개	3.23	0.69	--	5	2.38	0.78	--	5	2.73	3.16	--	1
	11.자원절약	3.36	0.65	2	3	2.93	0.78	2	2	1.44	3.35	2	12
	12.재활용과 재사용	3.40	0.65	1	2	2.95	0.78	1	1	1.52	3.14	1	11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사용 및 처분행위 영역 소개	3.38	0.65	--	1	2.94	0.78	--	1	1.48	3.25	--	5
전 체		3.29	0.78	--	--	2.58	0.81	--	--	2.36	3.49	--	--

〈표 3〉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친화적 소비자 교육의 필요도

구 분	성 별			환경과목 이수여부			거주하는 주택형태			F값
	여자 N=236	남자 n=190	t값	이수 합 N=86	이수 안함 N=340	t값	단독 주택 N=82	연립 (빌라) N=145	아파트 N=199	
	M			M			M			
1.바람직한 소비	3.43	3.36	1.21	3.38	3.40	-0.23	3.40	3.36	3.42	0.51
2.청소년의 소비문화	3.19	3.20	-0.09	3.20	3.20	0.01	3.22	3.14	3.23	1.09
소비윤리 영역 소계	3.31	3.28	0.77	3.29	3.30	-0.15	3.31	3.25	3.33	1.51
3.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3.23	3.12	1.75	3.19	3.18	0.12	3.07	3.23	3.19	1.44
4.국내외 오염의 실태	3.40	3.21	2.63**	3.28	3.32	-0.47	3.22	3.37	3.31	1.03
소비자 환경문제 영역 소계	3.31	3.16	3.16**	3.23	3.25	-0.27	3.15	3.30	3.25	2.39
5.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3.50	3.44	0.97	3.43	3.48	-0.65	3.43	3.45	3.51	0.56
6.환경분쟁과 해결방법	3.37	3.35	0.39	3.34	3.37	-0.38	3.38	3.38	3.34	0.16
7.생활속의 환경오염	3.19	3.21	-0.31	3.15	3.21	-0.78	3.28	3.16	3.20	0.94
8.환경을 감시하는 소비자의역할	3.21	3.16	0.32	3.05	3.23	-0.94	3.09	3.26	3.19	0.30
소비자 환경권 및 환경책임 영역 소계	3.32	3.29	0.61	3.24	3.32	-1.36	3.29	3.31	3.31	0.04
9.환경친화적인 구매의사결정과정	3.19	3.21	-0.29	3.15	3.21	-0.67	3.18	3.15	3.23	0.60
10.환경상품	3.34	3.15	2.82**	3.22	3.26	-0.52	3.21	3.23	3.29	0.52
환경친화적 소비자구매 영역 소계	3.26	3.18	1.84	3.19	3.24	-0.84	3.20	3.19	3.26	1.02
11.자원절약	3.38	3.34	0.62	3.35	3.37	-0.24	3.33	3.34	3.40	0.49
12.재활용과 재사용	3.40	3.40	0.04	3.38	3.41	-0.28	3.40	3.36	3.43	0.53
환경친화적 소비자사용 및 소비자처분 영역 소계	3.39	3.37	0.47	3.37	3.39	-0.369	3.37	3.35	3.41	0.94
전 체	3.32	3.26	2.71**	3.26	3.30	-1.56	3.27	3.28	3.31	1.27

*p≤.05 **p≤.01 ***p≤.001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 요구도 수준

2.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환경과목 이수여부,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 등 3가지를 선정하였다.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 변인은,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아파트의 특성상 분리수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이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특성 때문에(차정은,2000) 교육 요구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1)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의 필요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관련 변수에 따라 전체와 각 영역 및 세부항목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필요도는, 전체 영역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성별(p≤.01)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3.32점)이 남학생(3.2점)보다 높은 필요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필요도는 「소비자 환경문제」영역(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항목별로는 「국내외 오염 실태(p≤.01)」,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환경상품 알아보기」(p≤.01)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필요도를 보여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른 영역의 경우에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표 4>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친화적 소비자 교육의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

구 분	성 별			환경과목 이수여부			거주하는 주택형태			F값
	여자 N=236	남자 n=190	t값	이수함 N=86	이수 안함 N=340	t값	단독 주택 N=82	연립 (빌라) N=145	아파트 N=199	
	M			M			M			
1.바람직한 소비	2.77	2.72	0.72	2.78	2.74	0.44	2.79	2.68	2.78	0.95
2.청소년의 소비문화	2.51	2.54	-0.38	2.53	2.52	0.12	2.59	2.47	2.54	0.66
소비윤리 영역 소계	2.64	2.63	0.20	2.66	2.63	0.38	2.69	2.58	2.66	1.53
3.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2.42	2.54	-1.75	2.63	2.43	2.18*	2.52	2.46	2.46	0.26
4.국내외 오염의 실태	2.53	2.66	-1.63	2.74	2.55	2.12*	2.66	2.62	2.53	0.87
소비자 환경문제 영역 소계	2.47	2.60	-2.36*	2.69	2.49	2.94**	2.59	2.54	2.50	0.86
5.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2.53	2.64	-1.40	2.60	2.57	0.31	2.67	2.52	2.58	0.83
6.환경분쟁과 해결방법	2.56	2.52	0.47	2.67	2.51	1.65	2.68	2.51	2.51	1.45
7.생활속의 환경오염	2.60	2.54	0.74	2.64	2.56	0.81	2.54	2.65	2.54	0.86
8.환경을 감시하는 소비자의역할	2.18	2.31	-1.72	2.31	2.21	1.08	2.34	2.27	2.17	1.77
소비자 환경권 및 환경책임 영역 소계	2.47	2.50	-0.88	2.56	2.46	1.89	2.56	2.49	2.45	2.06
9.환경친화적인 구매의사결정과정	2.36	2.50	-1.77	2.48	2.41	0.68	2.40ab	2.57a	2.33b	3.78*
10.환경상품	2.28	2.41	-1.69	2.42	2.31	1.13	2.37	2.38	2.29	0.64
환경친화적 소비자구매 영역 소계	2.32	2.45	-2.45*	2.45	2.36	1.28	2.38ab	2.47a	2.31b	3.63*
11.자원절약	2.96	2.91	0.69	2.88	2.95	-0.67	2.95	2.98	2.89	0.52
12.재활용과 재사용	2.95	2.95	0.01	2.98	2.95	0.32	2.96	2.94	2.95	0.02
환경친화적 소비자사용 및 소비자처분 영역 소계	2.96	2.92	0.74	2.93	2.94	-0.14	2.91	2.96	2.93	0.19
전 체	2.55	2.60	-2.04*	2.64	2.56	2.86**	2.62	2.59	2.55	2.58

*p<.05 **p<.01 ***p<.001

필요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환경의식이 높기 때문에(강희선, 1993)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과목 이수여부와 거주 주택의 형태에 따른 필요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의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관련 변수에 따라 현재 다루고 있는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을 인식하는 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성별(p<.05), 환경과목 이수여부(p<.01)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는

남학생(2.60점)이 여학생(2.55점)에 비해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이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소비자 환경문제」영역((p<.05)과 「환경친화적 소비자 구매」영역((p<.05)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과목 이수여부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환경과목을 이수한 학생(2.64점)이 이수하지 않은 학생(2.56점)보다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소비자 환경문제」영역(p<.01)이, 세부항목별로는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p<.05)과 「국내외 오염의 실태」(p<.05)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환경친화적 소비자 구매행위」영역(p<.05)과 이에 속해있는 「환경친화적 소비자 구매의

사결정과정'의 항목($p \leq .05$)에서 연립(빌라)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의 경우, 연립 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좀더 다양한 상권에 접해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의 구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해, 실제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의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성별($p \leq .001$), 환경과목 이수여부($p \leq .001$),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p \leq .01$)의 3가지 변수 모두에 따라 요구도에 차이

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학생(2.52점)이 남학생(2.16점)에 비하여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영역별로는 「소비자 환경문제」영역($p \leq .001$)과 이에 포함된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p \leq .01$) 항목과, '국내외 오염의 실태'($p \leq .01$)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환경친화적 소비자구매」영역($p \leq .001$)과 이에 포함된 '환경상품' 항목($p \leq .001$)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 내용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학생이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필요도와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의 차이점수인 요구도는 여학생의 점수가 높아진 것이다.

〈표 5〉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친화적 소비자 교육의 요구도

구 분	성 별			환경과목 이수여부			거주하는 주택형태			
	여자 N=236	남자 n=190	t값	이수함 N=86	이수 안함 N=340	t값	단독 주택 N=82	연립 (빌라) N=145	아파트 N=199	F값
	M			M			M			
1.바람직한 소비	2.23	2.17	0.24	2.06	2.24	-0.47	2.07	2.30	2.19	0.17
2.청소년의 소비문화	2.18	2.11	0.27	2.12	2.16	-0.087	2.03	2.14	2.20	0.10
소비윤리 영역 소계	2.21	2.14	0.36	2.09	2.20	-0.39	2.05	2.22	2.19	0.19
3.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2.59	1.82	2.66**	1.77	2.37	-1.65	1.75	2.46	2.30	1.57
4.국내외 오염의 실태	2.88	1.81	3.14**	1.77	2.56	-1.87	1.86	2.47	2.58	1.26
소비자 환경문제 영역 소계	2.73	1.82	4.11***	1.77	2.46	-2.50*	1.80	2.46	2.44	2.64
5.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3.37	2.76	1.80	2.86	3.15	-0.69	2.62	3.21	3.21	0.93
6.환경분쟁과 해결방법	2.73	2.78	-0.13	2.23	2.89	-1.66	2.34	2.92	2.80	0.86
7.생활속의 환경오염	1.88	2.14	-0.81	1.64	2.09	-1.16	2.38	1.63	2.11	1.62
8.환경을 감시하는 소비자의역할	3.30	2.74	1.05	2.34	3.23	-1.34	2.37	3.15	3.25	0.78
소비자 환경권 및 환경책임 영역 소계	2.82	2.60	1.12	2.27	2.84	-2.37*	2.43	2.73	2.84	1.24
9.환경친화적인 구매의사결정과정	2.62	2.25	1.22	2.15	2.53	-1.01	2.49ab	1.87b	2.87a	4.32*
10.환경상품	3.47	2.42	3.46***	2.62	3.10	-1.27	2.74	2.79	3.26	1.28
환경친화적 소비자구매 영역 소계	3.04	2.33	3.28***	2.38	2.82	-1.60	2.62ab	2.33b	3.06a	4.73**
11.자원절약	1.42	1.47	-0.14	1.56	1.41	0.37	1.27	1.20	1.69	1.01
12.재활용과 재사용	1.53	1.52	0.02	1.38	1.56	-0.46	1.49	1.41	1.62	0.20
환경친화적 소비자사용 및 소비자처분 영역 소계	1.48	1.49	-0.085	1.47	1.49	-0.05	1.38	1.31	1.66	1.08
전 체	2.52	2.16	3.59***	2.04	2.44	-3.28***	2.12b	2.29ab	2.51a	4.81**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다음으로 환경과목 이수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환경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2.44점)이 환경과목을 이수한 학생(2.04점)에 비하여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환경문제」($p \leq .05$)와 「소비자 환경권 및 환경책임」영역($p \leq .05$)에서 환경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요구도가 환경과목을 이수한 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환경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다수(78.9%)를 차지하므로, 「소비자 환경문제」와 「소비자 환경권 및 환경책임」영역은 환경의식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아파트에 사는 학생(2.51점)이 단독주택에 사는 학생(2.12점)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영역별로는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p \leq .01$)과 이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항목($p \leq .05$)에서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 연립(빌라)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본 차정은(2000)의 연구에 비추어 볼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구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내용별로 대한 중학생의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자의 구매행위」영역과 「소비자 환경권 및 환경책임」영역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소비자의 구매행위」영역은 환경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과목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문영훈, 2000). 그러므로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을 위해서는 재활용이나 재사용 등 처분활동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소비활동으로서 구매행위에 대한 활동이 보충되어야 하며, 환경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내용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그리고 환경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

으며,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는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특성이 고려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갖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에는, 충실한 교육내용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대로 낮은 요구도를 갖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에는, 우선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환경교육은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는 물론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교과를 제외한다면, 생활과 관련된 실천적인 성격을 지닌 가정교과가 환경교육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가정교과에서 환경관련 내용을 다루는 자원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가족·의·식·주 등 모든 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정교과의 각 영역에서 환경교육 방안이 구체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환경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은 평생교육으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실천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생교육의 기초가 되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환경교육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선택과목으로 「환경과목이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학교의 수는 매우 저조하고, 각 과목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일부 내용의 지나친 중복과 누락은 학교 환경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교육의 방안으로 창의적 재량활동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은 중등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특정 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범교과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교과학습과 특별활동의 중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 환경교육을 이론상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환경교육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행사를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 행사는 교실 수업이 확장된 형태로, 공동체 의식

을 함양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학교 행사에 '환경을 살리기 위한 활동'이라는 목적의식이 추가된다면, 이론적인 교육으로 치우치지 쉬운 학교의 환경교육이 실천적 활동으로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학교 행사를 활용한 환경교육은 시수 제한의 문제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환경적 경험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의 협조와 교사의 노력이 요청된다.

□ 접수일 : 2003년 7월 15일

□ 심사종료일 : 2003년 9월 20일

참 고 문 헌

- 김동연(1998). 학교 소비자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가정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희(1997).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따른 환경교육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남(1993). 환경오염 탐색클럽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의 확산적 실천. 서립초등학교 현장연구 보고서.
- 김영애(1992). 청소년의 소비자교육 요구분석.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훈(2000). 청소년 소비자환경교육의 내용구성과 분석 -6,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현선(1998).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운아, 이기춘(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212.
- 백병성(1997). 소비자환경교육에 관한 一考. 소비자문제연구, 20호, 136~154.
- 성화경, 이연숙 외 8인(2000). 중학교 기술·가정. 서울: 동화사.
- 염수경(1997). 어머니와 교사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유아환경교육 요구도.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춘(1988). 소비자교육학. 서울: 교문사.
- 이득연, 송승연(1993). 소비자교육관련 교과서 내용 집필 방향 -제6차 교육과정 개편 대비. 한국소비자보호원.
- 이상대(1998). 중학교 환경교육에서 교과와 특별활동의 효과 -서울시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정(2000). 제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과 연계한 효율적인 환경교육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연숙(1995). 가정과 교사의 중·고등학교 가정관리 교육내용에 대한 수업 요구도와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1), 81~95.
- _____(1999). 가족생활교육론. 서울: 학지사.
- 장안나(1999).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소비자교육에 관한 요구도와 관련변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균(2001). 환경관련 단원 지역화 교수 학습을 통한 환경 보전 의식 함양. 인천교육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2000). 청소년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돈형 외 5인(2001). 중학교 환경.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채정현(1996).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목표에 대한 필요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5(1), 89~98.
- Altschuld, A.W.(1982). Classifying needs assessment strategies for teaching purpos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evaluation research society. Baltimore, Maryland, 1~5.
- Borich, G.D.(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ing-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39~42.
- Lave, J. & Root, D.(1978). The Lacota needs assessment: Purpose, process and outcomes. (ERIC Reproduction Service No. 169 090)

국문초록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즉, 환경친화적 소비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어 각 학교급에서의 환경교육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교육 효과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내용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고, 요구도 분석을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Scheffe 사후검증법을 사용하였다.

교육 요구도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 1)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환경친화적 소비자구매」영역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환경친화적 소비자교육의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으로는 학습자의 성별, 환경과목 이수여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로 나타났다.